

미용성형과 부작용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

정향인*, 김영아**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yakim@jejunu.ac.kr

Perception of Cosmetic Surgery and Associated Side Effects

Hyang-In Cho Chung*, Young A Kim**

*Dep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여대생들의 미용성형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함이다. 2019년 10월부터 4개월간 1대1 인터뷰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의 전통적인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용성형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의미있는 코드는 총 112개였으며 이로부터 13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에서 드러난 4개의 범주는 “미용성형 부작용에 대한 반응”,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 “자신의 미용성형에 대한 (추후) 전망”, “미용성형 결정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다. 연구결과는 보다 안전한 미용성형을 위한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인 미용성형 전에 충분한 숙려기간 및 환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미용성형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서론

국내 20~30대는 안면 미용성형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연령대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1]. 미용성형이 대중화됨에 따라 수술의 실패나 예기치 못한 감염, 안전사고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2]. 그러나 부작용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대생들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 ‘아름다워지기 위해’, ‘취직을 위해’ 미용성형수술을 했거나 하고자 한다[3]. 아마도 부작용보다는 성형을 통한 유익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형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통로가 의료진이 아니며 주로 인터넷과 TV로 조사되어[4], 미용성형과 그 부작용에 관한 국내 여대생의 인식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정보를 통해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미용성형 건강행동을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미용성형을 경험하지 않은 여대생으로,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8명으로, 1인당 1-3회의 인터뷰를 했으며,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인당 평균 29분이었다. 면담에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미용성형 부작용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지요.”로 시작했고, 중간에 “미용성형의 부작용으로 어떤 것을 겪게 될까요?”, “부작용에 불구하고 미용성형을 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Hsieh & Shannon [5]이 제시한 전통적인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방법을 따랐다.

3.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19-22세였다. 모든 참여자들이 미용성형수술과 시술의 신체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참여자 중 12명은 추후에 미용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용성형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참고문헌

- [1] Gallup Korea, "Appearance and recognition of cosmetic surgery - 1994/2004/2015/2020 compare [Internet]", Seoul, Gallup Korea, 2020.
- [2]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Determine the status of cosmetic plastic procedure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booklet for the users [Internet]", Seoul, NECA, 2014.
- [3] Lyoo IK, "The prevalence of diet and cosmetic surgery and influences on health in college female students", Research Report,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 [4] Seo YA, Cho Chung HI, Kim YA, "Experience and acceptance of cosmetic procedures among South Korean women in their 20s", Aesthetic Plastic Surgery, 43(2), pp. 531-538, 2019.
- [5] Hsieh HF, Shannon S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 1277-1288, 2005.
- [6] Xie Y, Brenner MJ, Sand JP, Desai SC, Drumheller CM, Roberson DW, Nussenbaum B, Kienstra MA., "Adverse events in facial plastic surgery: Data-driven insights into systems, standards, and self-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Medicine and Surgery, 42, pp. 102792, 2021.
- [7] Fu R, Chang MM, Chen M, Rohde CH, "A qualitative study of breast reconstruction decision-making among asian immigrant wom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139(2), pp. 360-368, 2017.
- [8] Redaelli A, Siddiqui Syed S, Liu X, Poliziani M, Erbil H, Prygova I, Atamanov V, "Two multinational, observational surveys investigating perceptions of beauty and attitudes and experiences relating to aesthetic medical procedures", J Cosmet Dermatol., 19(11), pp. 3020-3031, 2020.

의미 있는 코드는 총 112개였으며 이로부터 13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에서 드러난 4개의 범주는 “미용성형 부작용에 대한 반응”,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 “자신의 미용성형에 대한 (추후) 전망”, “미용성형 결정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다.

[표 1] 미용성형과 부작용 인식에 관한 범주들

범주	하위범주
미용성형 부작용에 대한 반응	경각심
	두려움
	부정
	희망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	외모 개선
	자기만족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의 부응
자신의 미용성형에 관한 전망	계획이 있음
	계획 없음
미용성형 결정과정에 필요한 것들	많은 상담
	숙려 기간
	충분한 정보
	건강한 자기사랑

4. 논의

미용성형의 부작용은 드물지 않게 발생되며, 최근 안면 성형수술의 합병증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거듭 밝혀진 바 있다[6]. 따라서,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관한 불필요한 경각심과 두려움은 줄여야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성형전문인들에 의해 올바른 통로와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정보의 질과 양, 의사와의 의사소통은 치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와 가족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7,8].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여성을 이해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적은 샘플 크기의 한국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상자들이 미용성형에 대한 부작용을 모두 알고 있으며, 안전한 미용성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결론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미용성형 부작용 인식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료소비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구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